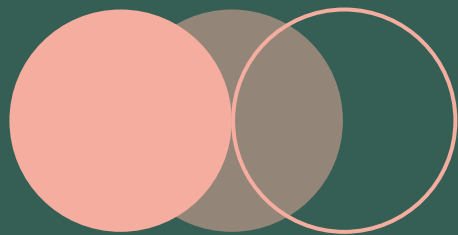

Seoul

2023
No.1

Economic

Issue Brief



서울경제이슈브리프

지속가능한 서울경제로 가는 길,
중소기업 ESG경영 생태계 조성

정병순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서울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1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대전환기에 ESG 투자와 ESG 소비, ESG 경영

20C 후반 글로벌 경제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전통적인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패러다임에 기반
- 20세기 후반 들어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후·에너지 위기의 심화 등을 계기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회사의 주주와 종업원 외에, 투자자, 고객, 협력사, 나아가 정부, 지역사회, 미디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요구를 고려하는 가운데,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자본주의로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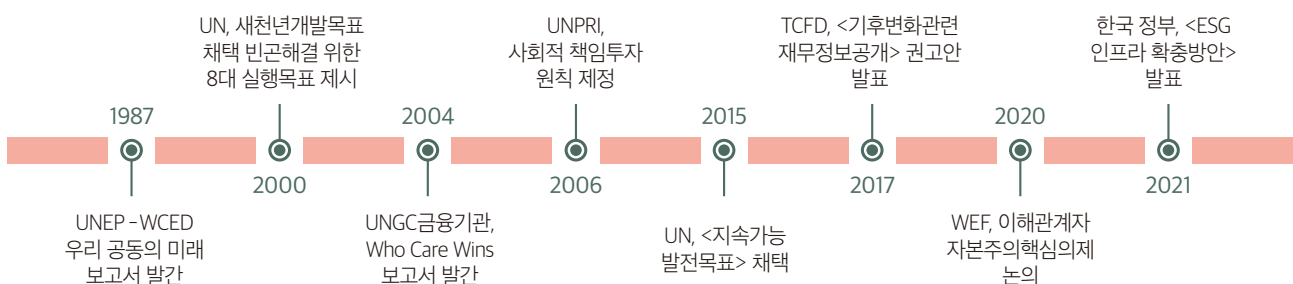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세계경제포럼(WEF)의 <다보스선언 2020> 내용

- 1990년대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대두한 이래,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공식적 의제로 채택
- <다보스선언 2020>에서는 이해관계 자본주의의 조건으로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주창
 - ①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 ② ESG 목표달성 측면에서 단지 재무적 측면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의 진정한 가치창출이나 파괴를 측정하는 적절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③ 각 이해당사자는 사회에서 취한 것을 받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기여한 만큼의 몫을 전체 과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에 의해 기업의 투자도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PRI)을 거쳐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 고려하는 ESG 투자가 거시적 트렌드로 확립

- 1987년 UNEP에 의해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지속가능성’이나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등이 도전적 글로벌 의제가 되면서 ESG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심도 고조
- 이에 따라 글로벌 기관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지속가능성(E), 사회적책임(S), 지배구조(G)와 관련된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ESG투자 원칙을 확립¹⁾

[그림 1] ESG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1) 이러한 ESG투자 원칙은 글로벌 자산운용기관인 블랙록(Blackwell)이 2020년 초 주주 연례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ESG 투자우선주의’를 천명한 이래, 수많은 투자기관들이 채택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민연금도 20년 11월에 향후 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 가량을 ESG를 고려해 투자할 것으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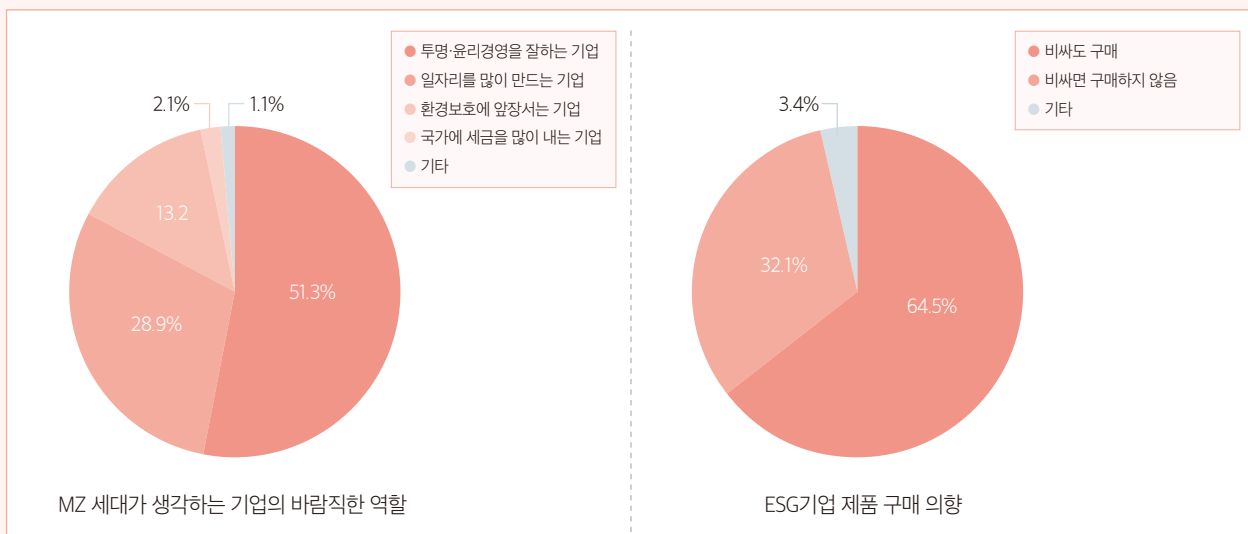
UN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주요 내용

- PRI는 ESG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결정 시 반영해야 할 6개 투자원칙과 35개 세부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
- PRI 6개 원칙의 주요 내용 :
 - 우리는 투자 의사결정 시 ESG 이슈들을 적극 반영한다
 - 우리는 투자 철학과 운용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 투자자가 된다
 -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경제환경의 변화는 소비시장에서도 활발해 새로운 소비양식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 이른바 윤리적 소비, 나아가 ESG 소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트렌드로 확립

- 특히, MZ 세대는 ‘가치소비’ 풍조 -가격이나 기능에 더해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를 중시하여 제품을 구매·소비 - 를 중심으로 ‘미닝아웃’(meaning out)이라는 신소비 문화를 확립
- 최근 한 조사에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MZ 세대는 윤리경영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과 함께 ESG 기업의 제품에 대해 강한 구매의향을 보임(대한상공회의소, 2021)
- 이러한 소비양식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나 기능을 넘어, 환경, 사회적가치, 윤리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하는 ESG소비 트렌드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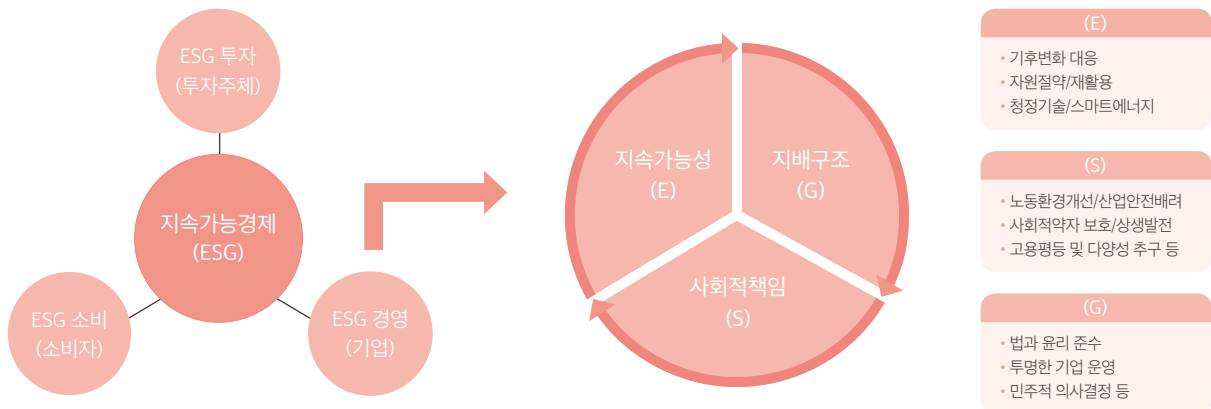
MZ 세대가 생각하는 기업의 역할과 제품구매 의향(대한상공회의소, 2021)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의 출현·성장 속에 ESG 경영, 즉 기업경영을 둘러싼 ESG 활동 또한 회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대사적 과제로 부상

- 20C 후반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속에 기업들은 이미 ‘이익극대화 모델’에서 탈피해, ‘사회적책임(CSR) 모델’을 거쳐 ‘공유가치창출(CSV) 모델’로 진화
- ESG 투자와 윤리적 소비가 주요 사회의제로 대두한 2010년을 전후해서는 기업들의 ESG 경영도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적응해야 할 시대사적 과제로 부상
- 여기서 ESG 경영이란 ‘경제적 이익 증대와 함께 사회적가치 -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성, 지배구조 등 비경제적 요소들을 포괄 - 실현을 기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경영 프레임’으로 개념화 해 볼 수 있음(*[그림 2]를 참조)

[그림 2] 지속가능경제(ESG)와 ESG 경영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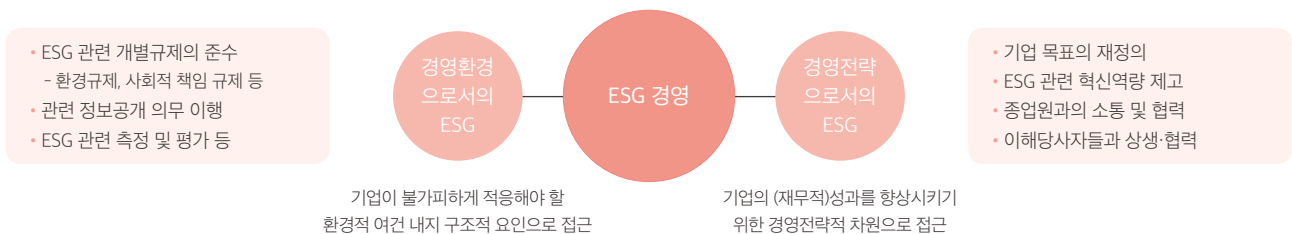


02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직면한 중소기업 ESG 경영

현재 ESG 경영은 지속가능경제를 선도하는 다른 두 축인 ESG 투자 및 소비에 의해 견인되는 가운데, 대체로 2가지 접근방법 하에 전개되는 경향을 보임

- ‘경영환경으로서 ESG 경영’과 ‘경영전략으로서 ESG 경영’이 그것으로, 전자는 ESG를 불가피한 구조적 경영압력 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련 요소를 도입하는 다소 소극적인 접근에 해당(*[그림 3]을 참조)
- 반면, 후자는 ESG 경영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신사업 기회와 이를 통한 투자자금 유치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 관련 활동을 도입하는 적극적 접근으로 이해
- 이러한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의 목표를 재정의하고, ESG관련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수 있음

[그림 3] ESG 경영의 2가지 접근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해 어떠한 접근을 취하든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ESG의 도입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임

- 실제, ESG 투자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ESG 투자나 ESG 경영과 재무적 성과 사이에 긍정적 효과가 우세²⁾

2) ESG 투자성과에 관한 대표적 연구의 하나로 인식되는 Friede(2015) 등에 의해 2,200여건에 달하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약 48%의 연구가 ESG 투자와 수익률간 정(+)의 관계, 23%는 중립적이고 다른 11%가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다수 실증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이나 ESG 활동과 기업의 성과 사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Donaldson&Preston, 1995; Barnett, 2007; Surroca, 2010)

-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수반되는 사업운영, 특히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ESG 경영을 통해 기대되는 다양한 효과

- ESG 금융 메커니즘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 기회 확대
- ESG 소비 지향의 고객 유인을 통해 제품 선호 증진과 매출 증대
- ESG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정의 효율화와 혁신적 사업기회 발굴
- ESG를 지향하는 이해당사자들과 우호적 관계 형성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 평판 개선 및 브랜드 가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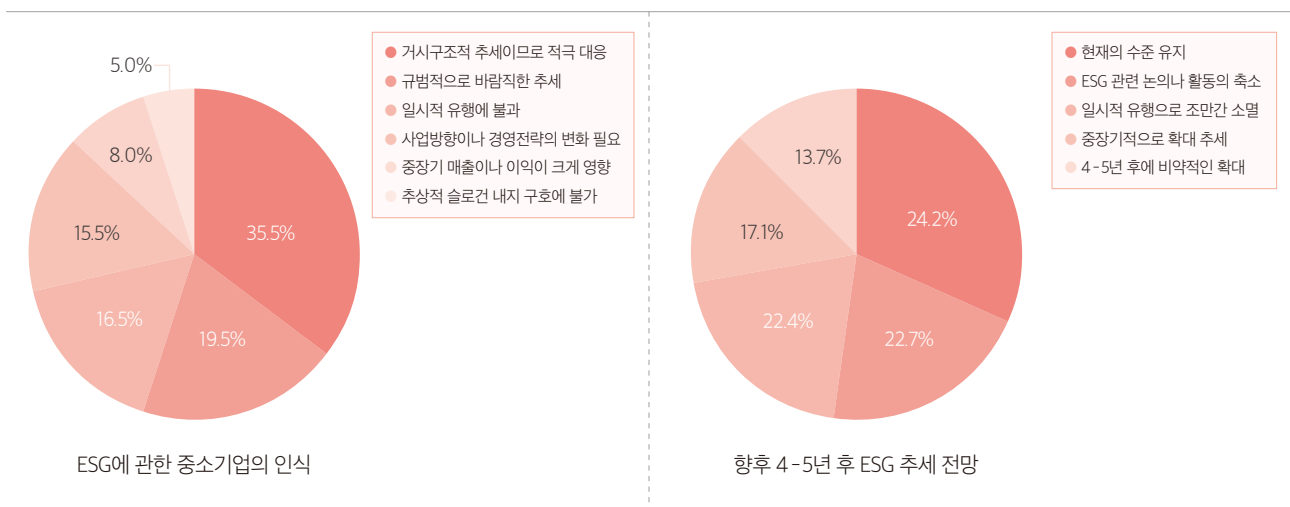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 속에 현재 ESG 경영은 글로벌 투자기관에 의한 구조적 압력에 의해 글로벌 대기업 및 이에 연계된 중견 협력사 주도로 전개됨

- 반면, 중소기업들은 ESG를 바라보는 이상(ideal)과 이를 도입하는데 수반되는 경영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경영여건과 함께,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보다 적극 도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다소 미흡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³⁾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2/3가 ESG 경영을 인지하는 가운데 ESG에 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소기업들은 ESG가 거시적·구조적 추세(55.0%)로 보거나 회사의 경영전략 변화(15.5%)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며, 일부 중장기 매출이나 이익에의 영향(8.0%)을 줄 것으로 인식
- 아울러 향후 4~5년 후 ESG 추세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24.2%)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확대(30.8%)될 것으로 보는 인식이 다수 우위를 보임

[그림 4] 중소기업들의 ESG에 관한 인식과 중장기 추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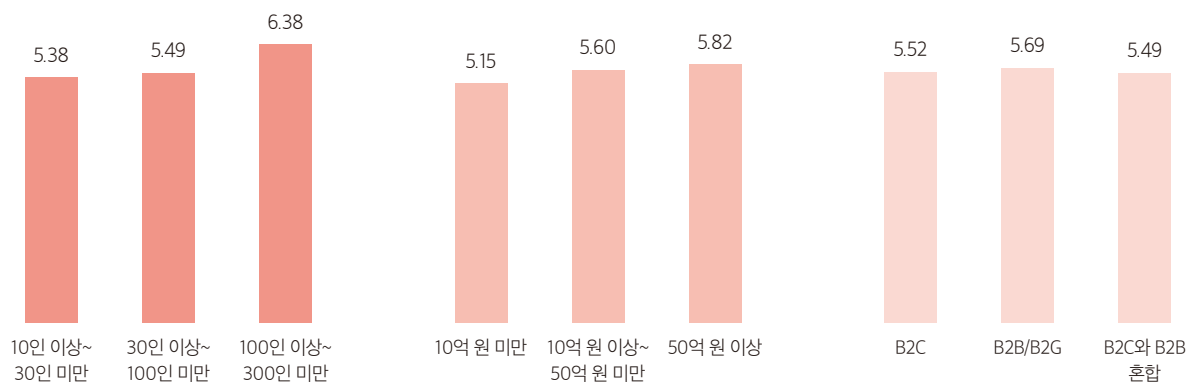
3) 동 조사는 2022년 10월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로 B2B 및 B2G 기업(50.3%), B2C(25.8%), B2B와 B2C 혼합(23.9%)으로 구분해 서울시 소재 32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 인식을 나타내고, 도입 시에도 규제적 환경으로 인식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 강함

- 현재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수준은 평균 5.6점(10점 만점)⁴⁾ 정도로 비교적 저조한 수준이며, 규모가 적을수록 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경영 여건상 도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전체 기업의 60%를 상회

[그림 5] 중소기업의 ESG 경영 수준(10점 만점 기준)

(Base: N=3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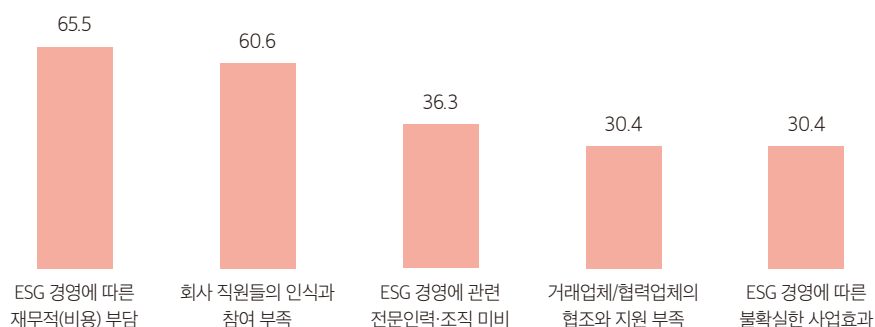


이러한 소극적 인식과 제한적 수준의 대응은 ESG 도입과정에서 경험하거나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다양한 애로요인에서 비롯

- 주된 애로요인으로서는 재무(비용)적 부담(65.5%)과 직원들의 인식과 참여 부족(60.6%)에 더해, 전문인력 및 조직 미비(36.3%), 불확실한 사업효과(30.4%) 등을 우선적 요소로 인식
- 따라서 이러한 애로요인들을 해소하고,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ESG 경영 관련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ESG 경영 도입과정에서 겪은(겪을) 주요 애로요인(복수응답)

(Base: N=322, 단위: %)



4) 여기서 10점 만점은 회사의 CEO의 강력한 의지 하에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실히 갖추고, ESG 경영 내지 지속가능경영 내용을 회사의 중장기 목표나 사업계획에 반영한 경우, 그리고 0점은 ESG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03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향해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속에 ESG 투자와 ESG 경영은 시대사적 과제로 부상

- 현 지질시대를 홀로세에서 인류세(anthropocene)로의 전환이라 인식할만큼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이해당사자들의 가치와 요구도 전례없이 다원화
- 이에 글로벌 투자기관들 주도로 사회적책임 투자→대기업의 ESG 경영→협력사에 ESG 경영 부가로 이어지는 최근의 메커니즘은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해 아직은 관심 밖에 있고,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는 이상과 현실 간 괴리에 직면

이러한 현실적 인식 하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모색 필요

우선 중소기업 전반에 ESG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관련해 ESG 경영이 단순히 행정적·재무적 부담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긍정적 효과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
- 아울러 ESG 경영을 경영전략의 일부로 도입·정착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학습 노력도 필요

이에 공공 영역은 업계와 함께 ESG 경영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

- 공공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식과 수범적 모델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ESG 관련 포럼의 운영 등 각종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
- 이와 함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ESG에 관해 각종 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

둘째, 중소기업의 ESG 경영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제도적 지원환경 조성도 긴요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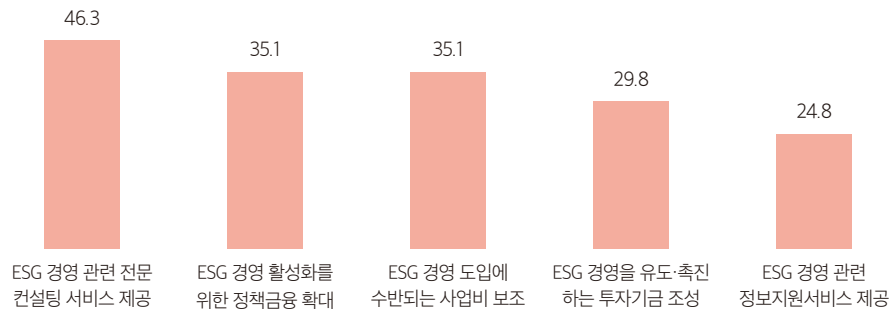
- 중요한 점은 중소·중견 기업들에 초점을 두되,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려는 소극적 관점이 아닌 적극적·전략적 관점이나 접근방법에 기초해 ESG 경영 생태계를 확립하도록 유도
- 이러한 중소기업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되, 이를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제도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제도를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이와 관련해 앞서 소개한 기업 대상 조사에서는 다양한 지원책 가운데 ESG 도입에 따른 행정적·재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ESG 경영 관련 전문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나 ESG를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확대, 투자기금 조성, 사업비 보조 등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함
-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으로 ESG 경영 관련 인증제의 도입 및 개선, ESG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선, ESG 금융 및 투자 관련 제도 개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및 조례 제정에 대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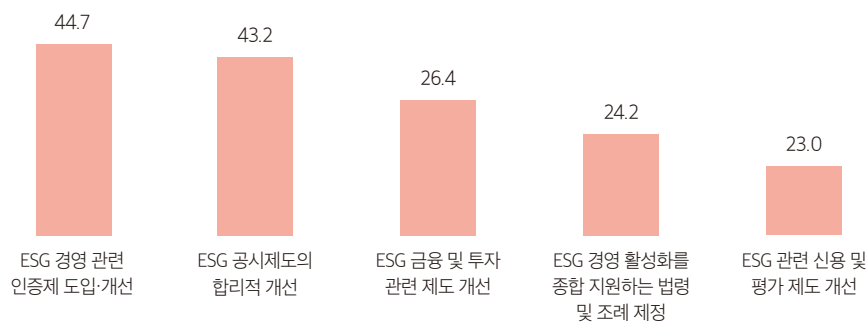
[그림 7]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선호

(Base: N=322, 단위: %)



[그림 8]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순위

(Base: N=322, 단위: %)



마지막으로 앞의 언급한 ESG 경영 생태계의 확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거버넌스 구축도 중요 과제에 해당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에서 시사하듯이 ESG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공공 부문이 주도하고 ESG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각종 현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ESG 경영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소, 2022, 'MZ 세대가 바라보는 ESG경영과 기업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정병순, 2022, 「지속가능 서울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출간예정)

Barnett, M., 2007, Stakeholder influence capacity and the variability of financial return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3)

Friede, G, et al., 2015,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5(4).

Donaldson, T & L. Preston., 1995, The stakeholder theory of the corporation: Concept, evidence and implic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1).

Surroca, J, et al., 2010,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Role of Intangible Resources: The Role of Intangible Resour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1(5).